

강압적 태도·선입견 수사...경찰 악습 관행 여전

광주변호사회 2024년 사법경찰평가

‘고압적인 태도, 선입견을 가진 수사, 1년 넘는 수사 지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광주·전남 경찰이 여전히 미흡한 수사력과 구태, 강압적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스스로 신뢰를 실추하는 행태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 변호사회)가 16일 공개한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 614명의 변호사중 151명의 평가를 받은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777명(광주 452명·전남 323명, 평가 건수 1270건)의 평균 점수는 78.40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지역민들이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받게 될 때 노력을 요청받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광주·전남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평가한 것이다.

또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 경찰을 직접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막강해진

수사종결권에 관한 강해졌지만

광주·전남 경찰 수사력 미흡 지적

사건 폭주하며 지연 수사 만연

지역민 권리 침해 등 행태 반복

광주경찰청·광양경찰서 ‘우수’

광주북부·여수경찰서 하위관서

경찰을 ‘평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법경찰 평가를 공개한 이래 올해도 유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광주변호사회를 벤치마킹해 도입하는 TF팀을 꾸려 도입을 논의 중이다.

올해 평가는 청렴 및 공정,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평가결과(76.57점)보다 다소 오른 것 이지만, 상식밖 행태는 여전했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다양했

다. 수사관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인 수사관도 있었다.

변호인을 모욕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소인에게 ‘어째서 저런 변호사를 선임했냐’, ‘저 변호사 얼마냐’, ‘전관을 선임하지 그랬냐’ 등을 말하는 수사관들도 있었다.

수사시 입회한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 전 공문을 통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노트북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수사 후 처리결과를 피고소인이나 법률대리인에 통지를 하지 않기도 했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피해자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한 수사관도 있었다. 특히 수사지연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10개월동안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1년 5개월 동안 2번의 조사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면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수사지연의 경우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사건이 물린 탓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수사 부서에 사건이 폭주하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과중으로 빠져나가고 신규 수사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수사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성두 광주시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장은 “평가는 하위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업무 능력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범적 사례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관서는 광주경찰청(평균 76.8점), 광양경찰서(평균 85.5점) 등이 선정됐고, 하위관서는 광주북부경찰서(평균 53.8점)와 여수경찰서(평균 48.6점)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사법경찰관은 남대권(광주청정반부패경제범죄수사 7팀), 박종필(광주동부서 수사 1팀), 이광범(광주북부서 여성·청소년수사 2팀) 등이 선정됐다. 하위사법경찰관은 선정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또래 여성 집단 성폭행 10대 3명 잇따라 구속

광주시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3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4일 또래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군과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C군은 지난해 12월 말 검거해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께 광주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인 D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연인 사이였던 B군과 D양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D양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부모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A군 등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B·C군을 구속했다. A군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듣지 않고 행적을 감췄다가 지난 12일 뒤늦게 검거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도심 모텔서 뛰어내리는 등 난동 알고보니 마약투약자...2명 검거

필로폰 양성 반응 확인

마약 투약자들이 광주 도심의 숙박업소에서 뛰어내리는 등 난동을 부린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모텔 4층 난간에서 20대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다 추락했다.

A씨는 소방당국이 미리 펼쳐 둔 에어매트 위로 추락했으며, 외상은 없었으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투숙하던 객실 내에서는 30대 B씨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 등을 거친 결과 소변, 혈액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부터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독감 급증...“마스크 꼭 쓰세요” 최근 들어 독감환자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 독감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집유기간 또 마약 복용한 20대 여성 구속

마약류를 복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20대가 또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광주지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를 복용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지난해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친구들과 마약류를 수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 4명의 친구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특성사법관리팀은 375명(마약,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명령, 강력사범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은 “지난해 관리 대상자의 재범률은 3.60%로 매우 낮았는데, 마약사범 재범률은 5.90%”라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약 재투약 등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인 살해하고 그 아내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직장 동료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신고를 막으려 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10시께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직장동료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내 C씨까지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납치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B씨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술을 마신 후 2층 창문으로 점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에는 C씨와 딸(4)이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범행 직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는 집

에 두고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앞서 A씨는 2005년 2월 6일 새벽 3시께 김제의 한 주택에서 30대 지인 D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또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B씨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능하기 어려운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